



산업부-방사청, 부처 협업으로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화

-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에서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소재부품기술 로드맵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6.20.(목), 현대로템 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시)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공동 주재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양 부처는 작년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군을 대상으로 107개의 방산 소재·부품 기술 수요를 발굴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존도, 공급망 안전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였다. 양 부처는 동 로드맵을 토대로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민·군 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엔진 소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 도전적인 부처 연구개발(R&D)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양 부처는 동 협의체를 통해 방산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협업 연구개발(R&D) 과제 지속 발굴 등 부처 간 소재·부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승렬 실장과 강환석 차장은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K2)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이용배 대표 등 경영진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방산 수출 대상국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 및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150)
		담당자	사무관	민승기	(044-203-4151)
			사무관	이순호	(044-203-4152)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진아	(02-2079-6440)
		담당자	주무관	강병주	(02-2079-6473)

참고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 개최

- ☐ 목적 : 산업부-방사청간 방산 소재·부품분야 협력 MOU('23.6월)에 근거하여, 방산 소재·부품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 일시 : '24.6.20.(목) 10:00 ~ 11:30
- ☐ 장소 : 현대로템 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시)
-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임채욱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방사청) 강환석 차장, 박진아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등
 - (유관기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민군협력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 ☐ 주요내용
 -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
 - 부처 협업 R&D 추진 방안
 -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방향
-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세부내용	비고
협의체	10:00~11:00	(10')	▶ 모두발언(산업정책실장 → 방사청 차장)	
		(50')	▶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 ▶ 부처 협업 R&D 추진 방안 ▶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방향 ▶ 자유토론(참석자)	
현장방문	11:00~11:30	(30')	▶ 현대로템 간담회 및 현장견학	